

연중 제2주일

# 숨 정 이

좁은 문으로 들어 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루가 13,24b).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기도서 422면 (C해)  
제1독서 : 이 사 66, 18-21  
제2독서 : 히 브 12, 5-7. 11-13  
복 음 : 루 가 13, 22-30

□ 강 련



## 좁은 문

업 기 봉 신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사나이가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되겠지요?”하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삶에 지친 대부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정스럽게 보다는 냉정스럽게 들리고, 평화보다는 불안울 느끼게 하고, 용기를 주기 보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 하간 예수께서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젊어져야 할 과정의 어려움과 절박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수도하던 그리이스의 어느 늙은 수사는 어느 날 자기를 찾아 온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시모, 자네가 하느님의 심판대에 나섰을 때에 하느님은 ‘자네에게 왜 모세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고 왜 요시모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을걸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성인이나 성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학입시처럼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뚫고 들어가야 하는 한정된 문도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나만의 특유한 개성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타인이 되는 길이 아니라 참된 나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거나 어느 직장에 있거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사랑과 시간을 값지게 성실히 살려고 할 때 좁은 문은 넓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대 성인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가지 있다. 첫째는 자기같은 죄인이 천국에 오다니 하고 놀라고, 둘째는 성직자나 수도자 그리고 평소에 독실하기로 유명했던 신도 회장들이 천국에서 아주 드물게 보이는데 놀라고, 셋째는 평소에 소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와 있는데 놀란다.” 복음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눈에는 결손한 죄인이 교만한 성인보다 낫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좁은 문은 넓은 문이고, 희망의 문이며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든 다리도 휘둘러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 12-13) (순창천주교회)



우리는...

부친정찰서 성고문·독립기념관 화재·폭력배들의 살인극·3당의 개헌안 제안·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제안, 참으로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나날들이다. 하도 큰 사건만 터지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성고문사건이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보면, 국민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데도 당국은 헛다리만 끊고 있다. 폭력배들의 살인극은,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은 드릴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개헌안문제나 지방자치제 문제만 해도 그렇다. 비단같은 말로 곱게 치장을 해서 내놓기는 했지만, 한번 더 들여다 보면 구멍 나고 냄새나는 속옷이 보여 구역질이 나려고 한다.

마침 우리를 대표하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全國平協)는 민주화 개헌의 선행조건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그 6개항의 내용인즉 이렇다. -비민주적 체제에 따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라. 인간을 위한 개헌이니 언론·집회·결사·신체의 자유를 먼저 존중하라. 양심수를 석방하고, 그들을 용공시 말라. 언론의 자유 위해 언론기본법 개폐하고, 제도언론 철폐하라. 고문하지 말고, 성고문 진상을 밝혀라.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참으로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다.

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짓는 독립기념관인데 졸속과 부실로 불사르다니... 더구나 일제 시설에 일본인에게 촬영을 맡기다니, 참으로 속이 뒤집힌다.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든, 그래도 우리는 9월부터 시판된다는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 건강에 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뿐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양담배는 선물도 하지 말고, 선물로도 받지 말자.

## 숨 정 이 산 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교구 공문

50주년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지난 8월 1일 개최된 자치교구 설정 50주년기념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1. 피정의 집 건축업자 선정은 총대리, 관리국장, 범석규, 문정현 신부가 최종 검토하여 결정토록 한다.
2. 50주년 특별 홍보주일(8월 31일, 연중22주)의 강론 요지 및 자료를 25일까지 작성 배부토록 한다.
3. 대림절 특별 순회강연과 순교사로 전시에 관한 건은 차기 회합에서 논의토록 한다.
4. 10만인 성지순례 운동을 실시한다.
  - 1) 성지순례 제1코스 : 여산순교지 → (도보) 천호성지
    - 2시 - 여산성지에서 순례자 축복예식
    - 5시 - 천호에서 파견미사
  - 제2코스 : 전주 숲정이 → (도보) 치명자산
    - 2시 - 숲정에서 순례자 축복예식
    - 4시 - 치명자산에서 파견미사
- 2) 일시 : 매주 토요일 2시~5시  
매주 일요일 2시~5시
- 3)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와 각 코스별 인도는 전교구 신부들의 지도하에 진행한다.
- 4) 성지순례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본당과 수도원에 배부한다.
- 5) 기념메달을 제작하여 순례자 전원에게 배부한다.
- 6) 성지순례를 위한 일반 규칙과 예식서를 팸플렛 형식으로 제작하여 순례자들에게 배부한다.
- 7) 가톨릭신문과 기타 교회 출판물을 통한 순례 안내문을 공지토록 한다.

□성서교실 ⑤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되겠지요? (루가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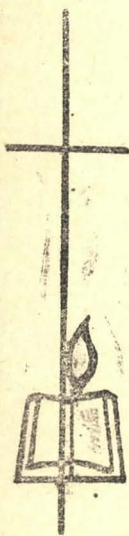
루가복음 13장 22절~30절은 22절~23절만이 루가복음의 특종이고, 나머지는 전부 마태오복음에 나온다.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되겠지요?」라고 질문을 한 자가 있었던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루가 19:11), 그 전에 있게 될 최후심판이 얼마나 엄할지를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랍비 사이에 있어서도 논의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예수 자신도 「혼인잔치」 비유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마태 22:14)고 한 적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되겠지요라는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하게 될 당연한 질문이기에, 이것을 예수께 물었던 것은 참으로 자연스런 것이었다. 「어떤 사람」(13:23)은 단수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질문일지 모른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13:24). 예수의 답변은 질문에 대한 정면의 답변이 아닐지 모르나, 그것은 정면의 단도직입의 답변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웃」이 누구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되겠지요 라는 추상적인 문제는 하늘 나라 「쟁취전」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그것은 말하자면 필요없는 문제인 것이다. 하늘 나라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요한 14:2). 이것은 본문(本文)과 모순되는 것 같다. 그러나 모순이 아니다. 있을 곳이 많아도 「좁은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

「좁은 문」이란 과거의 선행과 사업 및 공적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달하기 전에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의 배치」인 것이다. 신앙의 「좁은 문」을 두드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점  
**소흥영외과의원**  
 외과전문의  
 소 흥 영(요 한)  
 유 인 경(유리안나)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전주시청 앞)  
 병원 ③ 3668  
 자택 ③ 8120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홈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 중 환 치 과 의 원**  
 신라당 ○  
 팔달로 ← → 오거리  
 주 택 은행  
 조흥은행  
 김중환치과의원  
 ↓ 대량환원  
 원장 김 중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옆 신라당 건너편



# 교 구 소 식

- ☆ 전교용 리프렛 제작 배부 : 홍보국에서는 「기쁨과 희망속에서」 전교용 리프렛을 제작하여 각 본당과 공소에 배부하였으니 유용하게 쓰시기 바라며 모자라는 수량은 홍보국으로 신청하십시오
- ☆ **축! 건진(31일)** : 화산천주교회, 시간-10시 공식미사 중, 주례-박정일 주교님
  1. 재정참사회 : 25일(월)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농민사목위원회 : 26일(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3. 8월 전주 시민강좌 : 주제-성교문·용공조작의 진상을 밝힌다  
일시-26일(화) 오후 7시30분, 장소-전주 중앙천주교회  
강사-황산성 변호사, 주최-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4. 제10기 예비자 교리반 개강(가톨릭 신앙강좌)  
개강-9월 5일(금) 오후 7시30분, 접수 및 문의-교육국(☎0041)
  5. 주소 변경안내 : 안철문 신부님  
[152]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산 44-2 동정성모회 전화 (02)612-6197
  6. 천사회 1일차집 : 25일, 가톨릭센터 다방
- **축! 영명** : 성 바르톨로메오(24일)-문정현 신부님  
성 아우구스티노(28일)-김재덕 주교님, 김영일, 강덕창, 한정현신부님 축하합니다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116 : 1~14 복음 : 마태오 10 : 26~31

## ♣ 잠 간 !

주교님 해외사목 방문-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지난 7월 6일, 해외 교포사목 방문차 출국, 건강한 모습으로 8월 14일 무사히 귀국하신 주교님께서서는 그동안 북미쪽 교포교회를 방문, 각 본당의 현안 문제를 보고받고 교포사목 실태를 점검하셨으며 보다 나은 해외 교포사목을 위해 한국 주교회의와 미주 주교회의와의 사제 파견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될 것임이 이번 여행의 큰 성과였다고-

특히 멕시코를 방문, 본 교구 파견 선교사 세분의 신부님(정승현 신부, 김윤섭 신부, 방의성 신부)을 만나셨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단다.  
정승현 신부는 지난 8월 20일, 임지인 페루로 부임했고, 김윤섭 신부와 방의성 신부는 남은 어학코스를 마치는데로 10월중 페루로 떠날 계획이라고-  
지난 5월에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이 염려됐던 방신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열심히 공부중, 그동안 염려속에 기도를 많이 해주신 교구 신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주교님을 통해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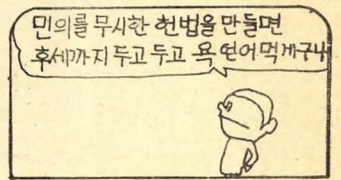
세분의 신부님들은 이제 페루에서 선교사로서의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파견한 세분 신부님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펼칠 그들의 선교활동이 좋은 성과를 얻도록 계속 기도중에 기억하자.  
정신부님의 「페루」 주소는 다음과 같다.

Rev. P. José Chong  
Parroquia Maria Madre de Dios San Cristobal 207  
Villa de Fatima, Rimac Lima PERU

서석기 신부님의 쾌유를 빕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그동안 이리 원광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중이셨던 서석기 신부님(함열 주임)은, 이제 전주 대학병원(7동 716호실)에 옮겨 입원 치료중이다.  
신부님의 쾌유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자.

## 요심이 (681) 김병오



### 『알리는 글』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땅의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금을 필요로 합니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번호  
조흥은행 702-1-091302

###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 제 일 안 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여러  
분께 열가봉사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동 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현대병 치료의 신약

### 영 지

이리시 월성동  
(해바라기농장 앞)  
**성심 영지 농장**  
☎ 3-9513  
김프란치스코·배아베스

## 이 리 성 모 병 원

야방과

내 과  
피 부 과  
소 아 과

한방과(신설)

내 과  
부 인 과  
물리치료과

중풍센터, 요통 및 성인병센터(부설 : 물리치료실)  
이리시 영동동 268 전화 3-0714~5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총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울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금주는 가정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 여하여 우리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시다  
※ 보좌신부님 휴가(25일~30일) 합니다
  - 2. 유아영세식: 30일 오후 3시  
당일 오후 2시까지 대부모님 모시고 나오세요
  - 3. 부녀회 월례회: 26일 어머니미사 후
  - 4. 본당 성지순례 봉사단 모임: 28일·29일 저녁 8시  
현지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5. 구역봉사자 모임: 27일 저녁 8시30분
  - 6. 공소 순회미사: 30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교무금 납부의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납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시다
  - 8. 금주전례: 해설-박종규, 독서 봉헌-노원규 부부  
신자기도-임영민 부부, 촛불봉헌-김환창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종관, 독서 봉헌-전태권 부부  
신자기도-조흥기 부부, 촛불봉헌-박상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57,020원 아파트: 218,940원  
지난주 교무금: 366,000원 아파트: 560,000원  
지난주 신축금: 840,000원 아파트: 100,000원

8. 회장단 친선단합대회: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0,770원 교무금: 69,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2. 사목회: 28일 오후 8시
  - 3.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사 는 신부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드립니다. 축하식은 31일 미사중에 있고 축하연은 미사 후에 있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제2성당 9시미사 없음)
  - 4. 8월은 예비자모집 기간이오니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 조바랍니다
  - 5. 사제양성후원금 신입: 안재원-2만원
  - 6. 금주전례:  
<본당> 해설-남정호, 독서-①이정빈 ②김낙균  
봉헌-강기호 부부  
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김나섭 ②오수환  
봉헌-안재원 부부  
차주전례  
본당: 해설-고정수, 독서-①김기업 ②김한기  
봉헌-유용산 부부  
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송남용 ②권학열  
봉헌-유이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성당-130,630원 본당-301,210원  
계-431,840원 성모승천금: 2성당-65,400원,  
본당-257,640원 계-323,04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수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사목회장 김 성 월  
수녀원 2-5238

- 1. 사목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2. 반회장 회의: 28일 오전 10시
  - 3. 병자봉성체: 29일
  - 4. 유아세례: 30일 저녁미사 전 7시30분
  - 5. 재속형제회: 오늘 오후 2시(삼회)
  - 6. 예비자교리: 목요일 저녁미사 후-본당신부님 지도  
주일 공식미사 후-원장수녀님 지도
  - 7. 성지순례: 9월 3일(부녀회 주관)  
90명 선착순 마감
  - 8. 증 게시판 설치: 이기백씨, 감사합니다
  - 9. 전입: 최희자-환영합니다
  - 10.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진 ②조성호  
봉헌-강희술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강립 ②최창기  
봉헌-나병규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2,120원 교무금: 558,650원  
성모승천축일: 284,850원 교무금: 245,15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번

- 1. 전동 울드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 2. 주민등록등본: 각 가정 1통씩 반회장님을 통해서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 3. 예비자교리반 안내  
금요일반-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토요일반(중·고생)-매주 토 오후 5시  
일요일반-매주 일 오전 11시
  - 4. 미사시간 안내: 주일-오전 5시30분·8시30분·10사  
·오후 3시·5시·7시30분  
평일-오전 5시30분·오후 7시30분
  - 5. 다음주일은 50주년 특별헌금 주일입니다
  - 6.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7. 영세식: 9월 13일 영세식 있습니다  
집중교리-9월2일~6일까지 오전 9시30분·오후 8사  
통신교리 수료자(6개월이상 성당에 나오신 분)
- 지난주 봉헌금: 1,095,210원 교무금: 590,000원  
성모승천금: 769,5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1. 축! 신부님 영명축일: 9월 4일  
축하식: 31일 공식미사 중에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드립니다
- 2. 우정의날 행사: 27일 저녁미사 후
- 3. 감사: 제1지구 성금: 덕진-20만원, 금암·효자·삼-레·동산-각 10만원  
사목회 친선모임-덕진 20만원
- 4. 축! 제대회 창립: 정단원과 협조단원 모집합니다
- 5. 전례교육 및 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 6. 성가연습: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 7. 숲정이 은인을 찾습니다: 1구좌-5천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총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저녁미사 시간변경: 7시30분으로(9월 1일부터)
  - 2. 예비자교리: 31일부터
  - 3. 은혜의밤(철야기도): 29일 밤 11시
  - 4. 유아세례: 31일 10시
  - 5. 수요성서 강좌: ①개강-9월 3일  
②낮반-오전 10시, 저녁반-오후 8시  
③범위-모세5경
- 지난주 봉헌금: 554,250원 교무금: 1,215,500원